‘세계도시 부산’: 공간 기획과 산업전략*

오미일** · 손은하***

〈차 례〉

1. 머리말
2. 세계도시론과 연구시각
3.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와 공간 기획
4. 이벤트에서 문화·컨벤션산업으로
5. 맺음말

【국문초록】

세계도시 개념은 유럽과 북미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적인 지역적 분업화와 관련한 도시재구조화와 공간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다. 이 글의 분석대상인 부산은 1995년경 ‘세계도시’ 아젠다를 제기하여, 2011년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산업재구조화와 공간재편을 추진한 대표적인 도시이다.

---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학진흥방안 인문한국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7-361-AL0001).

** 제1저자,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제2저자,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의 세계도시 아젠다는 세계도시론을 경제주의적으로 수용하여, ‘도시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를 도시비전으로 제기한 것이다. 아젠다 제기 당초에 세계도시화를 위한 부산시의 공간 정책은 ‘세계화 리딩존’(leading-zone), 즉 세계화전략거점지역을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지역 전체를 내륙, 해양, 낙동강 3개의 공간벨트로 구획하여 특성화된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부산시가 세계도시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한 것은 기존 해양물류산업 이외에 특히 문화산업과 컨벤션산업이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축제나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는 이벤트에서 출발하여 점차 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취했다.

주제어: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 공간 기획, 산업 전략, 부산국제영화제, 문화산업, 컨벤션산업, 도시재구조화, 로컬리티

1. 머리말

경제의 글로벌화 이후 오늘날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산업재구조화나 공간 변화 등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논자에 따라 세계도시(World City), 글로벌시티(Global City), 초국적 도시(Transnational Urban), 중추도시(key city)와 같은 다양한 개념이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도시 비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계화 지표나 기준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1] 하지만 세계도시

1) 조순제, 「세계도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연구』 12권 1호, 한국지역학회, 1996, p. 47; 임정덕, 「부산의 세계화를 위한 3가지 과제」, 부산

론자 대부분이 열거하는 세계도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①자본의 초국가적 집중 ②정보·서비스업 중심의 도시로 재구조화 ③통제와 명령의 중추관리 기능 ④사회적 공간적 양극화 현상 ⑤민족·인종·계급의 융합 ⑥세계도시 기능을 위한 건축물과 인프라 시설의 집적 등이다.[2)]

서구와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세계도시론이 성행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적 분업의 재편성과 그에 기초한 탈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세계도시화' 전략의 기치를 내걸고 도시재생을 시도하면서였다.[3)]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3년 11월 APEC 정상회담 이후 김영삼정부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경제를 집권후반기 국정 방향으로 정하면서 세계화 논의가 시작되었

발전연구원, 2005, pp. 3-12; 김인, 『세계도시론』, 법문사, 2005, pp. 27-45; 김헌민·박지윤, 「세계도시성 지표 분류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권 6호, 2005, pp. 24-26. 일본 홋카이도포럼에서는 인구 규모가 비교적 작은 도시라도 특정 분야에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정보를 발신하는 개성적인 도시를 '작은 세계도시'란 개념으로 제기하기도 했다(칸노 히데유키, 「토호쿠에 있어서의 작은 세계도시의 가능성에 관한 조사연구」, 토호쿠개발연구센터, 1994, 황영우, 「세계도시부산 2011계획수립의 내용과 향후 과제」, 『세계도시부산 어떻게 이룰 것인가』(2003.4.16), 부산발전연구원, p. 28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재 세계도시론의 동향이나 이 글에서 다루는 연구대상인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에서는 이러한 개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2) 임정덕, 「부산의 세계화를 위한 3가지 과제」, 부산발전연구원, 2005, p. 4. 그런데 세계도시를 규모나 세계화 수준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피터(Peter Taylor) 테일러는 알파급 세계도시(런던, 파리, 뉴욕, 도쿄 등), 베타급 세계도시(샌프란시스코, 시드니, 토론토, 모스크바, 서울 등), 감마급 세계도시(보스톤, 제네바, 오사카, 타이페이, 마닐라, 마이애미 등)로 나누었다. 베타도시까지는 세계도시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감마도시는 경계선상에 존재하므로 연구자간에 논란이 있는 범주이다(이재하, 피터 테일러의 세계체계론적 공간분석론」,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1; 임정덕, 앞의글, 2005, p. 7).

3) 남영우, 『글로벌시대의 세계도시론』, 법문사, 2006, pp. 111-112 참조.

다.[4] 이 세계화논쟁 이후 세계도시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했는데, 이는 산업구조 변화를 배경으로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역정부의 도시전략이 제시되면서였다.

경제의 세계화 상황에서 도시정부는 도시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개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관리주의'로부터 지역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주의'로 전환한다. 기업도시를 성장전략으로 채택한 도시정부는 대개 소비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혁신과 투자를 통해 컨벤션센타, 복합쇼핑몰,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개발코스를 취한다.

이 글은 경제의 세계화가 한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인 1990년대부터 광역 규모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세계도시론의 수용과 그 실천에 의해 전개되는 로컬리티(locality)의 변화를 공간 기획과 산업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5] 연구대상으로는 부산지역을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1990년대 초 '국제도시' 아젠다를 제기한 이래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도시 부산'

---

4) 「국제화 · 세계화」, 『국민일보』 1994년 1월 7일. 당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등의 용어 사용을 두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었는데 이후 '세계화'가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정부 개념 정리 나섰다」, 『서울신문』 1994년 1월 6일).

5) 한국 현대도시의 세계도시 전략이나 공간 배치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조순제, 「세계도시체계와 서울시: 세계도시시각을 통한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92; 이성복 외, 「경기도 내 세계도시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3; 유환종, 「광역경제권 개발과 세계도시로의 새로운 연계발전 방안」, 『지역발전국제컨퍼런스』, 대한지리학회, 2009; 박배균 · 고민경, 「세계도시이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바라 본 세계도시 서울의 형성과정」,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8 등이 있다. 그리고 부산에 관한 연구로는 공간 변화를 기 드보르(Guy Debord)의 스펙타클이론으로 접근한 김용규, 「스펙타클 이론으로 본 부산공간의 변화」(『오늘의 문예비평』 68, 2008)와 도시성 변화를 탈근대도시란 관점에서 다룬 장세룡 · 공윤경, 「탈근대 도시성(Postmodern Urbanity)의 탐색」(『한국민족문화』 34, 2009)을 들 수 있다.

아젠다로[6] 전환하여 2011년을 목표로 산업재구조화와 공간재편을 추진한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2005년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심포지움>에서 당시 허남식 시장이 기조발제에서 이야기했듯이,[7] 현재의 부산을 상징하는 많은 건축물과 주요 시설, 새로운 산업공간은 대부분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 제기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15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세계도시 아젠다 이후 '문화불모지'가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이미지화되었고,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의 거대한 주상복합건물과 광안대교가 연출하는 스펙터클한 도시경관으로 변모되었다.

본고는 근래 이루어진 부산의 공간재구조화와 도시성 변화의 단서와 유래를 '세계도시 부산'아젠다에서 찾고 그것의 수용과 실천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도시론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가 관료와 행정·경제 브레인들에[8] 의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아젠다 실현을 위해 진행된 공간 기획과 그 변화에 대해서도 추적해

---

6) 부산시는 아젠다로 '세계도시' 란 용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혹은 '글로벌도시'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03년 경 부산시가 작성한 「글로벌 도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부제는 '희망과 도약, 글로벌도시 부산'이었다.

7) 「'부산을 바꾸자'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심포지엄」(2005.5.26), 부산발전연구원.
"15년 전 부산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1990년 당시 부산에는 BEXCO도, 센텀시티도, 광안대교도 없었다. …… 부산경제 발전의 축이 될 신호·녹산공단,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신항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도 당시에는 꿈에 불과했었다. 현재 부산의 상징이라 할 주요 시설은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새로 건설한 것들이다."

8) 여기에서 말하는 브레인은 주로 釜山市政 정책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과 정책용역연구를 진행한 교수들을 말한다. 이를 위해 주로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움이나 포럼, 용역연구결과물 등을 검토할 것이다.

보려고 한다. 나아가 아젠다 실현을 위해 국제영화제나 아시안게임, APEC정상회담 등의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문화산업과 컨벤션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모름지기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 이후 15년간의 변화가, 개항 이후 식민도시 건설과 함께 형성된 근대 도시의 로컬리티를 전면적이고 급격하게 해체하면서 또한 再造해나가는 압축적 과정임을 조명하려고 한다.

2. 세계도시론과 연구시각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국제경제에서 세계경제로의 이동이라는 중요한 전환이 있었다.[9] 유럽, 북미의 산업도시들은 제조공장이 아시아, 중남미로 이전되면서 경제적으로 쇠퇴했다. 제조업이 세계도처로 분산되고 재배치되는 반면, 금융이나 글로벌기업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거점이나 본사, 그리고 정보 통신 관련 산업이나 기업 등은 더욱 더 세계도시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분업화와 경제체제의 재편은 도시체계의 재편, 도시 기능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야기했던 것이다.

---

9) Ash Amin and Nigel Thrift, "Neo-Marshallian Nodes in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4, 1992, p. 574. 이 글에서는, 글로벌경제의 특징이 ①세계적 규모로 산업 기능이 증가되는 점, ②기업권력이 계속 발전하여 새로운 글로벌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카르텔화하는 점, ③글로벌기업이 증가되는 공동화를 통해서 새로운 하도급 형태, 새로운 합작투자형태, 그리고 기업조직의 전략적 동맹이나 새로이 네트워크화된 형태로 분권화되는 점, ④단기간의 협동조합주의(short- run corporatism)라고 할 국민국가와 기업 사이의 불안한 균형이 존재하는 점이라고 서술한다.

세계도시(World City, Global City) 개념은 유럽과 북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경제 변화와 관련한 도시재구조화와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세계도시에 관한 연구를 주도해온 대표적 학자는 프리드먼(J.Friedmann)과 사센(S.Sassen)이라 할 수 있다.[10] 프리드먼이 세계도시 가설을 제기하여 연구의 선도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센은 생산자서비스라는 제3차 또는 제4차 산업이 세계도시 형성의 기반임을 주장함으로써 이론 정립에 공헌하였다.[11] 이들 연구자에 의해 세계도시라는 용어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과 대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12]

프리드먼은 1986년 국가의 경계를 넘는 초국적 도시의 도시화 과정을 세계경제와 연계시켜 세계도시에 관한 7개 조항의 이론적 가설을 제시했다. 그 요점은 ①하나의 도시가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와 정도, 그리고 새로운 노동의 공간적 분업 속에서 도시에 주어진 기능은 도시의 다양한 구조 변화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②세계의 중추도시는 생산과 시장의 공간적 조직 네트워크의 기점으로서 글로벌 자본을 제어하며, 그 결과 세계도시는 복잡한 계층구조를 이룬다. ③각 세계도시가 지니는 글로벌 중추관리기능은 생산과 고용 부문의 구조와 역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다. ④세계도시는 국제자본의 공간적 집중과 축적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⑤세계도시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수많은 이민노동자가 집결하는 목적지이다. ⑥세계도시의 형성은 산업자본주의의 주요 모순 즉 공간적 계층적 양극화를 수반한다. ⑦세계도시 성장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막대한 사회비

10) 남영우, 앞의 책, 2006, p. 196.
11) 김인, 앞의 책, 2005, p. 37.
12) 황영우, 앞의 글, 2003, p. 27.

용을 창출한다는 점이다.[13] 이러한 프리드먼의 가설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14] 이후 보완, 수정되는 과정에서 세계도시론의 주요 이론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사스키아 사센은 '세계도시'는 우리가 이미 수세기 동안 보아왔거나 더 오래된 시기에 아시아에 있었던 도시들까지 포함하는 몰역사적인 개념이라고 비판하고, 프리드먼의 세계도시, 브로델의 거대도시, 카스텔의 정보도시 개념에 대응하여[15] 현대의 구조화된 지구적인 것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글로벌시티 개념을 주장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현단계에서, 국가 영토 내에 범세계적 진행과정이 어떻게 입지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과 연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거시이론과 미시적 민족론이 상호작용하고 만나는 점으로서의 글로벌시티를 주목한다.[16] 특히 그는 세계화와 정보경제화의 과정에서도 물리적 조건, 생산장소,

---

13) John Friedman, "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 Change* 17-1, 1986, pp. 70-84.

14) 대표적으로 Korff는 각각의 도시가 지닌 역사적 배경이나 도시간의 역학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세계도시를 지나치게 단순 분류한다고 비판했다(Korff.R, "The World City Hypothesis: A Critique", *Development & Change* 18, 1987; 김인, 앞의 책, 2005, pp. 34-36 참조)

15) 곽노완, 「글로벌아고라의 도시철학」, 『마르크스주의연구』 제6권 2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p. 127.

16) 남기범 · 유환종 · 홍인옥 역, 『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 푸른길, 1998, pp. 21-22(원본은 Sassen. S, *Cities in a World Economy,* Fine Forge Press, 1994).
사센의 글로벌시티 모델은 지구화와 현대도시를 경제결정론으로 분석하는 패러다임이라고 비판되어 왔다. 어느 정도 타당한 비판이지만, 사센은 "글로벌 경제의 힘만으로 이러한 회로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 문화활동,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투쟁, 환경, 사회정의 또한 글로벌 회로의 형성과 발전의 양분이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결정론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사센은 보다 명시적으로 글로벌시티의 사회정치적 차원을 강조한다. 곽노완, 앞의 글, 2009, p. 128).

장소구속성(place boundedness)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경제의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용어와 이미지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장소와 국지성(the locale)의 중요성은 과연 무엇인지, 또한 대도시의 새로운 전략적 역할이 있는지, 그 역할은 진정한 세계경제체제의 형성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17]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부산의 세계도시전략과 관련한 로컬리티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사센은 경제의 세계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수출자유지역, 역외금융센터, 세계도시 등 세 가지의 장소 유형을 든다.[18] 그는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특정 대도시에서는 금융·법률·디자인·행정·교통 통신·광고·유통 등의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나타나는데, 이 '생산자서비스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서비스'라고 말한다. 그는 생산자서비스의 핵심은 보험·은행·금융·부동산·법률·회계서비스로 이 생산자서비스야말로 종래의 산업도시와 다른 세계도시 형성의 기반이라고 주장한다.[19]

한편 마이클 피터 스미스는 국가적 경계나 정체성이 점차 중요성을 상실해간다고 주장하는 세계도시담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초국적 도시이론을 제기하고, 경계·국가정책·국가적 정체성은 계속 중요하다고 주장한다.[20] 그는 지구화와 국민국가는 서로 배타적이며 적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적 범주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국민국가적 실천과 초국적 실천은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

17) 사센, 남기범·유환종·홍인옥 역, 앞의 책, 1998, pp. 17-19.
18) 사센, 남기범·유환종·홍인옥 역, 앞의 책, 1998, p. 46
19) 사센, 남기범·유환종·홍인옥 역, 앞의 책, 1998, p. 56
20) 마이클 피터 스미스, 남영호 외 역, 『초국적 도시이론-지구화의 새로운 이해』, 한울, 2010, p. 21(원본은 Michael P. Smith, *Transnational Urbanism*, Wiley-Blackwell, 2000).

서로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체로 간주한다. 그의 도시연구의 장점은 거시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변형을,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하고 그 속에서 살며 기대어 행위를 하는 미시적 네트워크와 구체적으로 결합시키는 행위자 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데에 있다.[21]

특히 그가 세계도시담론을, 세계적인 공적 철학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추진된 '전지구적 거버넌스'에 관한 폭넓은 현재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 비판하는 점은[22] 이 글에서 다루는 부산 지역정부의 정책 주체와 브레인집단의 '세계도시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정립에 매우 의미있는 가치기준을 제공해준다. 특히 지구적인 것을 경제적 추동력으로, 지역적인 것을 문화적 의미가 생산되는 필연적 장소로 이원론적으로 보는 하비와 카스텔의 이론을 비판하고, 초국적인 사회적 실천이 지역성의 상호관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구성되며 또한 지역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도[23]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이다.

아리프 딜릭이 지적하듯이, 스미스의 비판은 도시에 관한 담론에서 성찰성을 보다 제고하고 도시 분석에서 보다 예리한 역사적, 민족지학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24] 딜릭은 데이비드 하비와 같은 이론가는 자본의 형

---

21) 마이클 피터 스미스, 남영호 외 역, 앞의 책, 2010, p. 25.

22) 마이클 피터 스미스, 남영호 외 역, 앞의 책, 2010, p. 36.

23) 마이클 피터 스미스, 남영호 외 역, 앞의 책, 2010, p. 39. 그는 스티븐 코너(Steven Connor)를 인용하여 데이비드 하비의 도시에 대한 저술들은 모두 어조나 폭, 주제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 경제는 '기초 급진성 및 토대'를 제공하는 반면, 문화는 '비실체성 혹은 말라리아열과 같은 불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원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4) 아리프 딜릭, 「초국주의(Transnationalism)의 이론과 실천: 활용, 오용, 남용」, 『도시인문학연구』 2-2, 2010, p. 18.

성력에 몰두하면서 자본의 영역으로서 장소보다 공간을 강조해 왔지만, 스미스는 장소기반 정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지적한다.

하지만 장소기반 정치가 주변성을 벗어나려 한다면 장소는 공간 속에 투사될 필요가 있다는 딜릭의 지적은 세계도시(혹은 초국적 도시) 연구방법으로 유념해야 점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장소 혹은 장소를 둘러싼 정치관계가 주변성, 개별성에서 나아가기 위해 공간속에 투사될 필요가 있다는 딜릭의 지적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광역도시 부산에서 세계도시담론을 수용하여 공간 재편과 새로운 산업전략을 실천함으로써 도시재구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3.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와 공간 기획

부산은 2001년 '세계도시 부산'을 도시 목표로 설정했다.[25] 그러나 실제 '세계도시' 기치를 내건 것은 이미 1995년 무렵부터였다. 대표적으로 1995년 2월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 세계화 전략구상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개방화되어 국가간 교역/경쟁보다 지역간 도시간 교류/경합이 중요해진 무국경시대에는 지역이야말로 국가보다 더욱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가야 하는 주체"라고 규정하면서 '세계도시 부산'이란 아젠다를 제기했다.[26]

1995년은 도시공간 기획과 실천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994년 12월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개편되었고, 1995년 전국 행

25) 임정덕, 「세계도시 부산의 과제」, 효원학술문화재단, 2005, p. 1.

26) 박인호, 「부산의 세계화 · 세계도시 어디까지 가능한가」, 「부산 세계화 전략구상을 위한 정책포럼」(1995.2.7), 부산발전연구원.

정구역 개편으로 장안읍·기장읍·철마면·일광면·정관면이 기장군으로 신설 통합되면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다. 도시공간의 새로운 설계를 둘러싼 구상과 논쟁이 가열화된 계기는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였다.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나 그를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진영들에서 각기 중앙행정부로부터 벗어난 독자적인 도시 비전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미 동구와 구소련의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붕괴되고 1993년 말부터 '경제의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란 단어가 회자되던 상황이었지만, 아직까지 세계화가 지방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국민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임이 재확인되고 세계와 지역 혹은 도시가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1995년을 획기로 부산의 도시 비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부산시와 각종 연구소가 편찬한 문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산시나 市政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의 경우 1992~1994년에는 모두 '국제도시 부산'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에 들어서 '세계도시 부산'으로 바뀌었다.[27] 국제도시와 세계도시란 캐치프레이즈는 단순한 단어 차이를 넘어 도시공간전략이나 도시비전 측면에서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국제도시는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도시의 발전전략이 구상되고 실행되지만, 세계도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지역간 분업과 통합이란

27) 1992년 부산직할시의 용역으로 부산시스템발전연구소가 수행한 <부산 국제도시화 종합개발전략구상>에서는 부산의 장래 개발전략으로 '국제도시'(International City)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1992년 7월 재단으로 개원한 동남개발연구원(1994년 6월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법인명을 변경)에서 1993년에 발간한 『부산발전론』의 부제는 '국제화시대 지방의 발상과 전략'이었다. 또한 1994년 부산직할시에서도 <부산국제도시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995년에 들어서 부산광역시는 <부산세계화 추진전략>으로 변경하고, 이때부터 '세계도시'(World City, Global City)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구도로 작동하는 것이다. 부산의 행정·경제 브레인들은 이 때에 이르러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계도시 부산'의 비전과 도시성장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선진화→국제화의 다음 단계로 세계화를 시계열적으로 이해하고, 각 단계의 패러다임을 차별적으로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28] 세계도시전략을 처음 내세울 당시 '세계도시 부산'의 목표 시점은 2010년이었다.[29] 그런데 민선 3기가 출범한 2003년도 이후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를 계승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30] 달성 시점을 2011년으로 조정했다.[31]

그러면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가 공간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기획되었고 실천되었는지 살펴보자. 부산시정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세계도시 아젠다를 내세우면서 세계화의 전략거점을 구상하고 <표 1>과 같이 공간 기획안을 제시했다.

---

28) 박인호, 「부산의 세계화·세계도시 어디까지 가능한가」(1995.2.7), p.6; 남기범, 「세계도시의 유형과 내용적 특성」, 『"세계도시부산" 어떻게 이룰 것인가!』(2003.4.16), 부산발전연구원, p. 8.

29) 박인호, 「부산21세기 構想」, 『부산발전포럼』 1994년 8월, p. 11. 1994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한 '부산21세기구상사업'을 보면 2010년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30) 황영우, 앞의 글, 2003, p. 36. 2003년도에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세계도시 부산'에 관해 간행한 자료나 조사보고서는 이전 시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세계화 추진을 하기 위한 물리적 과제로 약 53개항을 무작위로 제시했다. 이를 분류해보면 대개 교통 수송망 하드웨어 구축과 문화 예술 관광분야, 기타 도시개발과 정비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세계도시 부산을 위한 추가과제' 82개항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로 세부적인 도시의 소프트웨어 관련 실천사항과 시민들의 복지나 생활관련 내용들이었다.

31) 부산발전연구원은 2003년도에 <'세계도시 부산'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세미나의 부제는 '세계도시 부산 2011'이었다.

<표 1> 부산세계화 리딩 존 (1995년)

국제관광휴양지대		국제업무·정보지대		국제주거·문화지대	
수영 비행장 이전지	국제문화공원	서 부산권	텔리포트 타운	송도 일원	외국인 거주타운
	해양레저, 마린파크		신항만(국제물류기지)		국제학교
	체력단련광장		국제종합유통센터		국제대학
	영상단지, 미디어파크		국제신공항		국제교류센터
	세계의 거리		컨벤션시설		국제문화시설
	세계식당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공관
	국제종합무역전시관(PUEX)		역외증권 등 국제금융기능		국제쇼핑센터(면세점)
동부 5개면	국제휴양, 골프장				
	야외캠프장				
	체험관광지				
	하버빌리지				
	Pension Village, Silver Town				

출처: 부산발전연구원, 『부산 세계화·세계도시 가능성과 전략사업』, 1995, p. 32, pp. 38-39; 박인호, 「부산의 세계화·세계도시 어디까지 가능한가」, 『부산세계화 전략구상을 위한 정책포럼』, 부산발전연구원, 1995, p. 24.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부산의 세계도시화를 위해서 '부산세계화 리딩존'(leading-zone) 즉 세계화전략거점지역으로[32] 국제관광휴양지대, 국제업무·정보지대, 국제정주·문화지대 등 3개 구역 설치를 구상했다. 국제관광휴양지대는 수영비행장 移轉地와 1994년

32) 부산발전연구원, 「부산 세계화·세계도시 가능성과 전략사업」, 1995, p. 20, p. 32.

말 부산시로 편입된 동부 기장군 5개면, 그리고 국제업무·정보지대는 서부산권, 국제주거·문화지대는 송도 일원의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이로 부터 15년 여가 지난 현재, '세계화 리딩존'은 당초의 공간기획대로 실천되었는지 검토해보자. 먼저 3개의 '세계화 리딩존' 가운데 국제주거·문화지대 즉 '부산국제타운'은 WTO체제 출범이라는 세계 조류 속에 많은 외국기업과 외국 문화가 유입될 것이고 이에 외국인들을 위한 One-Stop Service 시설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제안되었다. 그 입지대상지로는 기존 시가지역보다 공항과 철도의 접근성이 뛰어난 시 외곽이 공간 기능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33] 송도지구를 제안했으나, 이 구상은 실행되지 못했다. 외국인 주거타운의 조성이나 외국공관의 집적, 국제쇼핑센타(면세점)는 아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또한 공립국제학교는 설립되기는 했으나 부산진구 당감동에 입지했다.[34]

다음 국제업무·정보지대인 서부산권의 공간전략은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원래 서부산권에는 신항만, 국제신공항, 외국인투자지역, 역외증권 등 국제금융기능, 텔리포트타운, 국제종합유통센타, 컨벤션시설 등 주로 세계화에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인 교통(항만, 공항), 금융, 산업시설 관련 입지공간을 구상했다. 그런데 국제신공항은 입지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문제로 좌초되었다. 그리고 국제금융단지는 남구 문현동으로 입지

33) 부산발전연구원, 『부산 세계화·세계도시 가능성과 전략사업』, 1995, pp. 39-40.

34) 부산국제고등학교는 처음 1995년 3월 정부에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보고했으나 같은 해 5월 '공립국제중고등학교'로 계획을 변경하여 1998년 3월 개교했다. 2012년 현재 총 1749명을 배출한 이 학교의 설립목적은 "국제화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유능한 인재 양성"과 "해외귀국자 및 외국인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여건과 기회의 제공"이었다(http://gukje.hs.kr/ 2012년 9월 3일 검색).

가 변경되어 진행 중이다.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은 1996년부터 추진된 부산신항사업이다.[35]

한편, 수영비행장이전지 즉 현재의 센텀시티에는 원래 국제문화공원, 해양레저·마린파크, 체력단련광장, 영상단지·미디어파크, 세계의 거리, 세계식당가, 국제종합무역전시관을 설립하기로 계획했는데, 영상단지와 영화의 전당, 해양레저, 요트경기장 등이 실현되었다. 특히 당초 서부산권에 계획했던 컨벤션시설을 국제종합무역전시관과 합쳐 BEXCO로 설립했다.

따라서 세계도시 아젠다 제출 초기의 공간 기획이 비교적 원안 그대로 성공적으로 실행된 곳은 동부산권 그중에서도 수영비행장 이전지이다.[36] 이곳은 후술하겠지만, 세계도시 부산의 주요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상영화산업과 전시컨벤션산업의 입지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요컨대 1995년 기획되었던 '세계화 리딩존' 가운데 송도지구는 완전히 폐기되었으며, 동부산권(센텀시티와 기장군 일부)과 서부산권의 경우 일부 수정되었으나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편 부산시는 세계도시 정책과 그 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을 위해 2003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책 진단을 신청하였다.[37]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아시아권 도시 중에서는 처

35) 1997년 부산신항만(주)를 설립하고, 2000년 기공식을 가졌다. 2011년 완전 개장했으며 현재 선석추가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36) 이곳은 1976년 8월 김해국제공항으로 공항 기능이 이전된 이후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계속 비행장부지 이관을 요청하여 1996년 2월 수영비행장이 군용항공기지에서 제외되면서 마침내 1996년 4월 부산시와 육군본부 사이에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해 7월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12월에 승인받았다. 1997년 9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었고, 2000년 5월 부산정보단지에서 센텀시티로 이름을 바꾸어 2005년 11월 기반조성공사를 마쳤다.

37) 「부산, OECD 공인 도시됐다」, 『서울신문』 2005년 1월 18일; 「OECD 부산 발전잠재력 커」, 『부산일보』 2005년 1월 17일.

음으로 1년 6개월간의 현지실사와 서류 검토를 통해 '부산리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결론의 부제를 "세계도시 후보, 부산"으로 달고, "세계도시 부산의 기치는 시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38] 그리고 부산의 세계도시 전략은 부산을 초대형 컨테이너항만으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2의 항만(부산·진해 신항만), 서울·부산 간의 고속철도 또는 대형 컨벤션센터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기반시설 프로젝트들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부산시는 OECD의 정책권고사항인 ①국제공항 철도망 건설 등 복합연계망 구축으로 항만국제경쟁력 확보와 선진국 수준의 항만 개발 ②APEC정상회담 개최를 도시개발의 기회로 활용 ③부산·울산·경남 광역경제권 형성과 역동적 산업클러스터 구축 ④IT·영화·영상 등 부산 특유의 문화·관광사업의 육성 ⑤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39] 수용하여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했다. OECD 리뷰를 계기로 부산시는 도시비전을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로 정하고 도시목표를 '국가남부경제권 중추도시' '동북아 문화·과학중심도시' '세계자유거점도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표 2>와 같은 공간벨트전략을 수립했다.

---

38) 『OECD Busan Review International Symposium』(2005.1.17), 부산발전연구원, p. 97.

39) 허남식, 「'부산을 바꾸자' 세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로드맵」(2005.5.26),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심포지엄』, 부산발전연구원, p. 15.

<표 2> 부산지역 3개벨트 성장축(2005년)

구 분	행정구역	역 할	기 능	7대프로젝트
내륙벨트	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	중추관리축	행정, 정보・금융, 유통거점	-부산 U-city 프로젝트 -문화도시부산 프로젝트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해양벨트	서구・중구・동구・영도구・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해양개방축	해양과학, 관광, 영상, 무역거점	-동부산 프로젝트 -Asian Gateway 프로젝트
낙동강벨트	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성장동력축	신산업, 항만・항공・물류거점	-낙동강 프로젝트 -국제자유도시 추진

자료: 허남식, 「'부산을 바꾸자' 세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로드맵」,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심포지엄』, 2005, p. 17.

공간벨트전략은 종전에 세계화선도구역 즉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방식과 달리, 도시의 기능적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부산지역 전체를 3개의 공간벨트로 구획하여 특성화된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내륙벨트는 행정, 정보・금융, 유통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시재창조프로젝트, U-City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해양벨트는 해양개방축과 관광・영상・무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부산프로젝트, Asian Gateway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낙동강벨트는 항만・항공・물류와 新産業의 기지로 건설하기 위해 낙동강프로젝트, 국제자유도시 설립을 추진했다.[40]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해양벨트와 낙동강벨트의 프로젝트는 모두 세계도시아젠다 실현을 위한 기존 사업이지만, 내륙벨트의 문

40)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허남식, 「'부산을 바꾸자' 세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로드맵」, 부산발전연구원, 2005, pp. 18-25 참조. 그리고 부산시는 이때 체계적으로 세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20비전'을 수립했다.

화도시·도시재창조 프로젝트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점이다. 도심 재생과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문화도시, 창조도시 담론이 확산되자 부산시에서 2010년 7월 창조도시본부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과 같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데에서 도시 비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발표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41] 도시계획의 철학을 보여주는 도시 성격규정이 표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란 점에서[42] 공간 구상의 기본틀은 종전의 세계도시 인프라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벤트에서 문화·컨벤션산업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의 행정·경제 관료나 브레인들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를 제기했다. 그런데 '세계도시 부산'이 도시비전으로 제기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경제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부산 지역경제는 경제개발 초기에는 정부의 수출지향적인 공업화전략에 크게 부응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43] 이는 부산의 주요 생산업종은 신발·섬유·

41) 「부산의 미래도시 모습은 '창조·교류 해양도시'」, 『연합뉴스』 2011년 9월 1일. 이때 제시된 도시비전은 '창조와 교류의 스마트 해양수도 부산'이었으며 구체적 목표는 '동북아해양산업 선도도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품격 있는 녹색·창조도시, 국제문화·영상·컨벤션도시'였다. 2020비전과 비교해 가장 변화된 것은 도시공간구조로 다핵분산형 중심지체계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즉 종전의 1도심(광복동, 서면)을 분리하여 구도심(광복동)과 신도심(서면)으로 분리하고 기존의 5부도심(해운대 동래 덕천 사상 하단)에 강서를 더하여 6부도심으로 개편했다.

42) 「부산도시계획 10년 전과 이름만 다르네」, 『경향신문』 2011년 9월 1일.

43) 김일곤, 「부산경제의 침체와 극복방안」, 『부산발전론 - 국제화시대 지방

철강·조선으로 특히 신발과 섬유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개발전략에서 부산이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가 심화되면서, 부산시는 지역경제와 산업 전략의 돌파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림 1> 단계별 전략산업

1단계 10대 전략산업 (1999~2003)		2단계 10대 전략산업 (2004~2008)		3단계 10대 전략산업 (2009~2013)	
성장 유망 산업	항만물류 관광 소프트웨어 금융 영상	핵심 전략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핵심 전략	해양산업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구조 고도화 산업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	지역 전략	선물금융 해양바이오 실버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	미래 전략	금융산업 고령화친화산업 의료산업 생활소재산업 디자인산업 그린에너지산업

자료: 부산광역시, 「10대전략산업육성마스터플랜」, 2011.

부산시는 1999년 4월 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그림 1>에서 보듯이 1단계(1999~2003) 10대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이는 성장유망산업분야(항만물류,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영상)와 구조고도화 산업분야(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로 구성되었다.[44] 2단계(2004~2008)에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핵심전략산업과 지역전략산업으로 개편했다. 핵심전략산업은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지역

의 발상과 전략』, 동남개발연구원, 1993, pp. 230-231. 전국 수출액에서 부산의 비중은 1975년 24.1%, 1985년 13.5%, 1991년 10.2%로 감소했다.

44) 김종한,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 투자분석」, 『산업혁신연구』 3, 2003, p. 15.

전략산업은 선물·금융, 해양바이오, 실버,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업을 선정했다. 그리고 3단계(2009~2013)에는 핵심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으로 나누었다. 산업 명칭이 바뀌고 시기적으로 주력산업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전략산업의 내용은 10여 년간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2012년 9월경 부산시 경제산업본부는 국내외 경제와 지역 산업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10대 전략산업을 7대전략산업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45] 그러나 7대산업은 기존 산업을 대부분 통합한 것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중요한 점은 금융산업을 빼면서 인프라서비스산업을 추가한 점이다. 그런데 인프라서비스산업은 금융을 비롯하여 법률·행정·세무·회계 등의 포괄적인 기업서비스로, 사센이 말한 세계도시의 형성을 이루는 생산자서비스산업을 말한다. 피터 테일러(Peter J. Taylor)와 워커 베버스톡(Walker Beaverstock)이 회계·광고·금융·법률서비스 등 네 가지 생산자서비스를 기준으로 세계도시를 세 등급으로 나눈 것에서 알 수 있듯이,[46] 인프라서비스산업은 세계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주요산업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부산지역의 경우 세계도시의 주력산업인 금융산업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데도 인프라서비스산업을 계속 내세움으로써 세계도시 아젠다의 산업전략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점이다. 그러면 공간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전략산업인 문화산업과 컨벤션산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장하는지 살펴보자. 해운대구 센텀시티 기반공사가 준공된 2005

45) 「부산시 10대전략산업 4년만에 손질」, 『BUVI News』 2012년 9월 10일. 7대산업은 신해양산업, 기계부품산업, 그린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헬스산업, 문화영상산업, 인프라서비스산업, MICE 산업이다. 그러나 7대 전략산업은 2013년 들어서는 새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트랜드와 지역 여론 수렴 등에 의해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한다.

46) 이성복, 「세계화시대에 세계도시의 발전전략-경기도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발표회, 2004, pp. 957-958.

년 이후 이곳에는 본격적으로 문화산업과 컨벤션산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이 잇달았다. 특히 해운대구는 2005년 2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해당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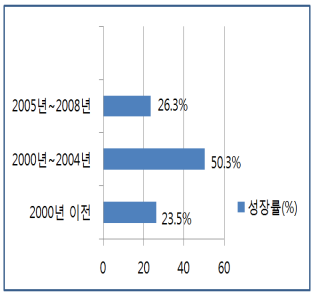
1) 문화산업(영화·영상, 문화콘텐츠)

문화는 오늘날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산업(CT산업)은 "문화상품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데 관련된 모든 산업"으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의 광범위한 분야이다.[48] 이는 문화 전반을 말하는 것으로 영상산업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산시가 문화산업에 관심을 가진 이후 가장 발전한 시기는 <그림 2>에 나타나듯이, '2000년도 이후부터 2004년'까지로 볼 수 있는데 성장률이 50.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2005~2008년'이 26.3%, '2000년 이전'이 23.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애니메이션산업은 2000년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으나 2005년 이후에 62.5%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47) 임정덕, 「부산의 세계화를 위한 3가지 과제」, 2005, p. 14.
48)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0년 부산CT산업현황조사보고서』, 2011, p. 3.

<그림 2> 문화산업 업체의 설립연도별 성장률과 사업내용



구분	2000년 이전	2000년~2004년	2005년 이후
애니메이션	0.0	37.5	62.5
영화	8.3	58.3	33.3
비디오물	45.2	41.9	12.9
게임	10.0	50.0	40.0
방송	35.7	45.2	19.1
음악	15.4	61.5	23.1
디지털문화콘텐츠	20.0	65.7	14.3
기타	33.3	38.9	27.8

자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08년 부산CT산업현황조사보고서」, 2009, p. 26.

<표 3> 부산지역 문화산업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0/08년 성장율
총 업체수	3,277	3,027	3,008	-8.20%
매출액	1,179,344	1,207,985	1,254,684	6.38%
총 종사자수	15,564	16,265	17,161	10.26%

자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2부산정보산업진흥원사업설명회자료집』.

<표 3>에서 보듯이 부산지역 문화산업은 2008년 대비 2010년 실적을 보면 업체수는 -8.20%로 감소했으나, 오히려 매출액과 종사자수는 각각 6.38%, 10.26%로 증가했다. 이로 보아 초기에 난립했던 업체들 가운데 경쟁력 있는 업체만 성장하여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늘었고, 그 외의 업체들은 정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는 지역의 신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했다.[49] 이곳에서는 부산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육

49)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1997년 6월 부산S/W지원센터로 출발, 2001년 부산

성을 위해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지원’사업과 ‘콘텐츠공정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50] 또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산하기관으로 2012년 4월경 문을 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BCC)는 지역의 역량있는 문화콘텐츠산업체의 발굴 지원, 콘텐츠기업의 집적화와 수도권기업의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51]

문화산업의 입지공간을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 총 424개 업체 가운데 해운대구(40.1%)에 가장 많은 170개 업체가 위치해 있다.[52] 이는 2008년 해운대구 센텀시티가 ‘부산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었던 점과도 연관되는데 이 지구에 입주한 업체에게 부동산 취·등록세 및 5년간 제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지원센터를 개소한 후 2002년에 법인등기를 마치고 2003년 1월 개원했다. 산하에 부산정보문화센터(2008), 입체영상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2010년)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2002년 대연동~센텀시티DMZ 구역을 부산소프트타운으로 지정했다.

50) 전자는 지역의 유망한 문화콘텐츠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집중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게임과 영상, 모바일이나 콘텐츠개발, 유통 등의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제작(1년 이내) 6개 내외를 선정해 과제당 5~9천만 원, 장기제작(2년 이내) 1개에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후자는 콘텐츠 유통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내 중소콘텐츠 사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 사업자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공정거래관련 교육과 법률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2 부산문화콘텐츠지원사업설명회자료집』, 2012, p. 17).

51) 「부산, 문화콘텐츠산업도시 ‘날개 달았다’」, 『부산일보』 2012년 5월 1일.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는 19, 80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3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여기에는 전국 유일의 SSD기반 슈퍼컴퓨터를 갖춘 ’공동제작센터’, 3D입체영상을 연구하는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디지털 감성 문화체험공간인 디지털 콘텐츠 전시관 ’더놀자’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5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0년 부산CT산업최종보고서』. 그 외에 부산진구(9.9%), 남구(9.4), 사상구(7.3), 금정구(5.9), 중구(4.2) 순이다.

<그림 3> 센텀시티 영화영상혁신지구 영화영상타운조성도



출처 : 「제2의 도약기를 맞은 영화도시 부산」. 『BDI포커스』 121호, 2011년 10월. p. 6

<그림 3>은 수영비행장이전지인 센텀시티 영화영상혁신지구에 조성된 영화영상타운이다. 여기에는 영화와 영상산업에 관련한 시설들로 영화의전당, 영화촬영스튜디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AZworks), 부산영상벤처센터, 시네마테크부산, 입체영상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등이 건립되었다. 앞으로 영화박물관도 설립할 계획이며, 3D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 영화영상타운에는 문화산업 관련 시설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영화나 기타 영상물을 촬영한 후, 후반작업을 이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영화·영상산업과 관련된 기구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등도 타운과 주변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면 센텀시티에 입지한 문화산업이 어떤 경로를 거쳐 '세계

도시 부산'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했는지 살펴보자. 부산지역 문화산업의 시발점은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1995년 이후 문화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지역 축제들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53]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행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54] 대규모 축제의 성공은 도시브랜드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치 경쟁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계기로 산업으로 확장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영상부문이었다. 1996년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한국 및 아시아영화의 지원, 새로운 작가의 발굴, 세계 영화계에 아시아 영화를 알리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였다. 비경쟁부문으로 출범한 만큼 초기의 영화제는 예술영화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아시아의 수준 높은 영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행사였다. 비관적으로 보였던 영화제의 성공은 관객의 폭발적인 반응과 더불어 지역 영상산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영화제의 성공으로 일회적인 축제를 넘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영화제 관계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1998년 PPP 부산프로모션플랜)라는 프리마켓을 만들어 영화가 제작되기 직전 혹은 제작 중에 투자자나 배급사, 공동 제작자들을 연결시켰다.

---

53) 정부에서도 1995년 관광업무를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한 후 '문화관광축제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지역축제 가운데 관광 상품성이 높은 축제를 지원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양위주·이미순, 「해양축제를 통한 부산권 해양관광 진흥전략」, 『동북아문화연구』 14, 2008, p. 98).

54)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아시안위크 등을 전개했다. 이후 2000년 부산국제락페스티벌, 부산비엔날레, 2005년 부산세계불꽃축제를 개최했고, 그 외에 부산국제광고제, 부산국제무용제, 부산국제창작음악축제 등

PPP의 성공을 기반으로 2006년 AFM(아시아필름마켓)이 출범하여 새로운 영화비즈니스모델인 온라인스크리닝구매시스템을 구축했다.[55] 이 온라인구매시스템은 일본과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도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56] 이외에도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영화제작 창업투자회사와 함께 아시아영화를 주로 다루는 배급사를 설립하여 영상산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57] 이와 같이 영상산업 성장을 위해 공간 재편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이 구상되고 실현되고 있으나, 아직은 부산 산업구조 변화나 경제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성급한 시점이다.

2) 전시・컨벤션산업

전시・컨벤션산업(MICE)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통합해서 말하는 개념이다.[58] 이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378조원에 달할 정도이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이 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GDP의 0.45%를 차지하고 연간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59] 국내

---

55) 이 e-market에서는 윈도, 맥, 아이폰, 아이패드상으로 영화를 보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56)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말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즐기는 법', 『부산일보』 2011년 9월 27일. 온라인시스템 덕분에 2011년에는 지난해보다 판매 부스가 67% 정도 늘었고, 참가자도 24% 증가했다.

57) BIFF가 투자하여 설립한 발콘(BALCON, Busan Alternative Content Network)은 중국의 배급사인 '존보미디어'와 MOU를 체결해 작품성 있는 영화와 독립영화들의 국내외 배급을 지원하고 중국으로까지 활로를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58) 안경모, 김주연, 정두연, 권도희, 「한국 MICE산업 육성 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적 연구」, 『컨벤션연구』 19, 한국컨벤션학회, 2008, p. 9.

전시·컨벤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6조 2,336억 원에 이르며 종사자는 12만 3,000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성장동력세부실천계획'을 통해 전시·컨벤션산업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시는 2004년 이후 관광산업과 함께 컨벤션산업을 4대 핵심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전략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운대구는 2005년 2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되었다.[60] 2001년 5월 전시장 벡스코 건립 이후 이곳에서 굵직한 국제회의와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61]

또한 중요한 이벤트로 2005년 APEC정상회담 개최를 들 수 있는다.[62] 이 회의는 단발성 국제행사였으나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했다. 참석자의 여행, 숙박비용 등 직접적인 효과만 2,369억 원에 달한[63] 이 행사는 부산이 본격적인 마이스(MICE)산업으로 도

---

59) 우석봉, 「전시·컨벤션, 국제도시 부산의 신성장 엔진」, 『BDI 포커스』 135호, 부산발전연구원, 2012년 1월, p. 2.

60) 정승진, 「부산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 정책방향」, 『직업과 인력개발』, 2008년 봄호, p. 5.

61) 2001년 12월 FIFA한일월드컵 조 추첨을 시작으로 하여 제1회 국제모터쇼(2001), 아시안게임미디어센터(2002), ICCA연차총회(2003)와 같은 국제행사들을 유치했다.

6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회원국 정상들이 1993년부터 매년 11월 회원 각국을 돌면서 열고 있는 비공식 회의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이다.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했고, 지금은 공식적인 회의와 각종 접견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63) 『OECD "Busan Review" International Symposium』, 부산발전연구원, 2005, p. 156.

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은 2010년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4위, 세계에서 17위로 서울 다음의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64] 그렇지만 이것은 근래에 들어 급성장한 것으로 1999년에만 하더라도 국제회의 건수는 서울과 제주도 그리고 대전, 경기도, 경상북도에 이어 6위의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다.[65]

이 마이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눈에 띌 정도이니, 대개 관광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을 받는다. 특히 부산시는 문화·영상도시의 이미지 구축, 마이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도시 간의 치열한 MICE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국에 전시컨벤션과를 신설했다. 또한 MICE·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부산관광공사를 설립했다.[66] 또한 국제회의 개최건수와 참여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012년 5월 벡스코 제2전시장을 완공했다.[67]

---

64) 우석봉, 앞의 글, p.2. 2010년 벡스코에서 개최된 전시·컨벤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9,08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292억 원, 취업유발효과 1만 4,565명, 고용유발효과 8,319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65)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개최현황』, 1999, p. 16.

66) 2012년 11월 지방공사형태로 공식출범한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전시컨벤션주식회사(벡스코), (사)부산관광컨벤션뷰로, (주)부산관광개발 등을 통합한 기구이다(「부산을 세계적 「부산관광공사 지방공사 형태로 11월 설립」, 『연합뉴스』 2012년 6월 12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67) 부산시는 제2벡스코 준공일인 2012년 6월 13일을 '제1회 부산 전시·컨벤션의 날'로 정하고 그 행사로 '아시아의 미래, 부산의 미래, 신성장동력 MICE산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또한 시민 200명을 초청하여 컨벤션시설 투어를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13일 부산전시·컨벤션의 날 지정 국제포럼개최」, 『경남도민일보』 2012년 6

이와 같이 부산이 세계도시를 지향하면서 전시·컨벤션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벡스코에 많은 국제회의나 전시회가 유치되고 있는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전국 최초로 도시마케팅과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가진 '부산컨벤션뷰로'의 설치 운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벡스코의 개장에 맞춰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고 개최함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홍보와 마케팅이 주효했다고 본다. 셋째 수려한 해양경관과 호텔, 백화점과 같은 쇼핑센터 등이 전시·컨벤션 지원시설 기능을 함으로써 부산의 국제회의도시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시설, 서비스, 주최조직과 기획업체, 참가자, 컨벤션 뷰로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 점도 들 수 있다.[68] 이러한 여러 가지 점 때문에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이 급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부산은 1995년경 '세계도시' 아젠다를 제기하여, 2011년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산업재구조화와 공간재편을 추진한 대표적인 도시이다. 따라서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 대두 배경과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 기획 및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분석은 같은 시기 서울이나 인천과 같은 광역도시의 '세계도시' 비전과 로컬리티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월 6일). 이 오디토리움은 센텀지구의 대규모 쇼핑단지와 지하로 연결시키고, 또한 시립미술관과는 구름다리로 연결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화의 전당까지 아우르는 전시·컨벤션 관광노선을 구축했다.

68) 우석봉, 앞의 글, pp. 5-6.

세계도시 개념은 유럽과 북미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적인 지역적 분업화와 관련한 도시재구조화와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다. 프리드먼은 1986년 국가의 경계를 넘는 초국적 도시의 도시화 과정을 세계경제와 연계시켜 세계도시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제시했다. 특히 사센은 보험·은행·금융·부동산·법률·회계서비스와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자서비스산업이 종래의 산업도시와 다른 세계도시 형성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는 이와 같이 글로벌기업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의해 위로부터의 도시재구조화는 필연적이며, 세계도시는 종전의 산업도시가 나아가야할 새로운 도시유형이란 인식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1994년 12월 부산직할시의 광역시로의 개편, 1995년 기장군의 통합과 民選市長 선거 등은 '세계도시' 아젠다 제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젠다 제기 당초에 市의 정책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세계도시화를 위한 공간 기획으로 3개의 '세계화 리딩존'(leading-zone) 즉 국제관광휴양지대(센텀시티, 동부산권), 국제업무정보지대(서부산권), 국제타운(송도 일대) 설치를 구상하고 실천했다. 그러나 2005년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가 <부산리뷰> 보고서에서 '세계도시 후보, 부산'으로 평가한 후, 도시의 기능적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지역 전체를 내륙벨트, 해양벨트, 낙동강벨트 3개의 공간벨트로 구획하여 특성화된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한편 부산시는 세계도시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일차적 방안으로 1996년 이후 다양한 대규모 축제와 아시안게임, APEC정상회담 등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시브랜드 향상에 주력했다. 이러한 국제이벤트를 계기로 산업으로 발전한 대표적 사례가 영화·영상 등의 문화산업과 컨벤션 산업이

었다. 이들 산업은 1999년 이후 지역의 10대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유망산업에서 핵심전략산업으로 성장했다. 그 산업공간은 처음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 제창 시 '세계화 리딩존'의 하나로 구상했던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곳에는 10여 년간 부산산업진흥원,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영상영화타운, 벡스코 등의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세계도시 부산' 아젠다는 무한 개발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하는 도시비전이다. 즉 부산시 관료나 브레인 집단이 세계도시론을 경제주의적으로 수용하여, '도시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를 세계도시의 비전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도시 비전과 공간 기획에서 공간주체인 지역민의 삶과 일상은 부차적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도시를 지구화라는 어떤 단선적 발전과정의 결과물로서 모든 도시들의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지구화되고 있는 혹은 지구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변화하고 있는 도시"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마이클 피터 스미스의 '초국적 도시'론을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세계도시를 글로벌한 어떤 단선적 발전의 최고점으로 인식하기보다 세계의 도시들과 문화적 혹은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연대하기 위해 금융·통신·정보·교통의 인프라와 관계망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도심재생과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문화도시, 창조도시 담론을 수용하여 마을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창조도시 조성 등의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서 그러한 도시비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비전의 마인드가 하드웨어 편중에서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일정하게 변화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 목표나 산업전략은 여전히 '세계도시 부산'아젠다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아젠다는 깃발을 내렸지만 공간구조나

도시인프라, 도시경관에 내재된 '세계도시' 담론의 여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경남도민일보』 2012. 6. 6.
금성근, 「제2의 도약기를 맞은 영화도시 부산」, 『BDI포커스』 121, 2011.10, pp. 1-12.
김인, 『세계도시론』, 법문사, 2005, pp. 27-45.
김일곤, 「부산경제의 침체와 극복방안」, 『부산발전론-국제화시대 지방의 발상과 전략』, 동남개발연구원, 1993.
조순제, 「세계도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연구』 12-1, 한국지역학회, 1996, pp. 47-62.
김헌민 · 박지윤, 「세계도시성 지표 분류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6, 2005, pp. 23-37.
남기범, 「세계도시의 유형과 내용적 특성」, 『"세계도시부산" 어떻게 이룰 것인가!』 2003.4.16, 부산발전연구원, pp. 7-24.
남영우, 『글로벌시대의 세계도시론』, 법문사, 2006.
마이클 피터 스미스, 남영호 외 역, 『초국적 도시이론-지구화의 새로운 이해』, 한울, 2010.
박배균 · 고민경, 「세계도시이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바라 본 세계도시 서울의 형성과정」, 『연례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지리학회, 2008, pp. 169-172.
박인호, 「부산의 세계화 세계도시 어디까지 가능한가」, 『부산 세계화 전략구상을 위한 정책포럼』, 1995.2.7, 부산발전연구원, pp. 1-43.
부산광역시, 「10대전략산업육성마스터플랜」, 2011.
『부산일보』 2005. 1. 17, 2011. 9. 27, 2012. 5. 1.
부산발전연구원, 『OECD "Busan Review" International Symposium』,

2005.
부산정보산업진흥원,『2010년 부산CT산업최종보고서』, 2011.
우석봉, 부산발전연구원,「전시·컨벤션, 국제도시 부산의 신성장엔진」,『BDI 포커스』135, 2012.1.
Ash Amin and Nigel Thrift, “Neo-Marshallian Nodes in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4, 1992, pp. 571-587.
John Friedman, “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 Change* 17-1, 1986, pp. 69-83.
Korff. R., “The World City Hypothesis: A Critique”, *Development & Change* 18, 1987, pp. 483-493.

'World City Busan': Space Planning and Industrial Strategy

Oh, Mi-Il · Son, Eun-Ha

Concept of World city has been used to explain town re-structuralization and space change related to worldwide regional division of labor appeared since 1970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1990s in Korea. Busa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representative city by making agenda of 'World city' around 1995 and actively proceeding with industrial re-structuralization and space reorganization with the goal year of 2011.

Space policy of Busan city for World city in the early times of making agenda was 'globalization leading-zone', that is, to establish base area for globalization strategy and to reorganize and cultivate industry centered on this base. But after 2005, Busan city changed direction where Busan territory was divided to three space belts such as inland, marine, and Nakdong River; each belt is cultivated as specialized growth axis. Fields that Busan city gave special attention as new growth driving force for World city were cultural industry and convention industry besides existing marine and logistics industry. To do this, Busan city had a strategy that such strategy starts from event to lure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or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then expands towards industry gradually.

Agenda of World city for Busan suggested 'town in higher rank in town position' as vision for town by accepting theory of World city from view of economism. But recently this voice is obtaining power - World city system is a process to construct infra and relation net of finance,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transportation to exchange and make ties with several cities in the world culturally and economically rather than to recognize World city system as the order of rank of single line global development. As a result, minute change is appearing in vision for town.

Key word: ‘World city Busan’ agenda, space planning, industrial strategy,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ultural industry, convention industry, town re-structuralization, locality

오미일
소속: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소: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동 804-1호
전화번호: (051)510-7428
전자우편: omil@pusan.ac.kr

손은하
소속: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소: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동 807-8호
전화번호: (051)510-7437
전자우편: galaxys05@pusan.ac.kr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6일 투고하여
2012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24일 게재 확정함.